

해남 화원산단, 해상풍력발전 전진기지로 조성

신안 풍력발전 핵심기자재 건조시설·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해남군이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추진되는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발맞춰 화원조선산업단지 관련 산업을 유치, 배후단지로 활용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명현관 군수는 최근 대한조선(주)을 방문해 화원산단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해상풍력발전 핵심 기자재인 블레이드·하부구조물 등 투자유치 업체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명 군수는 정대성 대한조선 사장과 면담을 통해 조선소 내 기반시설과 미개발 부지를 해상풍력 구조물 건조시설로 활용하는 등 관련 기업 유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화원산단 활성화 방안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조선은 대불산단에 위치한 내업공장을 화원조선산업단지 이전할 계획으로 직원 1500여명의 인구 유입과 산단 활성화를 통한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명 군수는 화원면 구림리에서 매월리 간 2.9km 진입도로 개설 등 산업단지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화원조선산단은 총면적 205만5622㎡, 분양면적 198만3470㎡에 달한다. 2024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산업단지에 조선업뿐만 아니라 금속가공 제조업 등 업종을 추가해 해상풍력발전 기자재 생산의 여건을 마련했다.

해남군은 화원산단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물류기지 확보와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정부의 그린 뉴딜정책과 전남 블루이코노미 비전에 대처하는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안 해상풍력단지는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선도모델로 8.2GW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48조원이 투자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 450개 기업을 육성하고



명현관 해남군수가 지난 3일 대한조선을 방문해 화원조선산단의 신안 해상풍력발전 배후단지 조성을 논의하는 모습. <해남군 제공>

12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 군수는 "화원조선산업단지는 전남 해상풍력 물류의 최적지로 전남도와 협력해 해상풍력발전

제조업체를 적극 유치해 신안 해상풍력발전 배후

단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코로나블루' 전문 심리치유 영광군, 마음건강주치의 호평

영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하는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이른바 '코로나 블루' 전문 심리치유 서비스를 제공해 호평을 받고 있다.

영광군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상담을 받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이 서비스는 영광군보건소가 위촉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제공한다.

상담은 영광읍 동동후면시아 커뮤니티센터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2시간씩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속에 진행된다.

마음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한 한 주민은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겨 상담을 했는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 서비스는 영광군민이면 누구나 사전 전화예약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은 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 전선 지중화

70억 들여 원도심 2.15km

전선·통신선 지하로 매설

목포 원도심 근대역사문화거리의 도로 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목포시는 최근 근대역사문화거리의 보행·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등록된 만호·유달동 지역은 한전주, 통신주 등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악천후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목포시는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 만호동과 유달동을 관통하는 원도심 변화로를 중심으로 4개 구간 2.15km의 전선과 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한다.

공사비는 목포시와 한국전력·통신사 등이 각각 50%씩을 부담해 추진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지중화 사업이 원도심 경관 개선, 안전한 주거 환경과 쾌적한 도로 관광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중화 사업과 연계해 보행환경 개선사업, 1897개항문화거리 가로조성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목포시는 근대역사문화거리의 보행·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진행한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전·관리 신안군-국립생태원 업무협약



신안군과 국립생태원은 최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종 복원·서식지 보호, 연구지원 공동 활용 및 공동 연구, 생태교육 콘텐츠 개발·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서식지 개선·관리, 사후 모니터링과 주민교육 등을 연계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복원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신안군은 2009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고, 2016년 신안군 전역(3238.74km²)이 확대 지정됐다. 다도해와 국내 최대 갯벌 등 도서·연안 생태계가 잘 발달한 지역으로 참달팽이, 신안새우난초, 나도풍란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이자 철새들의 중간정착지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협약은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자원을 확보하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퇴근 후 방문하세요"

해남군, 야간 민원실 운영

해남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한 야간 민원실 운영을 재개했다.

야간 민원실은 평일 근무시간 내 군청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맞벌이 부부, 학생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 행정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며, 주민등록 등·초본 뿐만 아니라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이 되지 않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여권 접수·교부 등이 가능하다.

해남군 관계자는 "야간 민원실 운영으로 근무시간 내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제각각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영암왕인축제 온라인으로 즐기세요"

4월 1~16일 17개 프로그램 운영 응원댓글 등 참여하면 선물 '듬뿍'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축제로 열린다.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는 영암왕인문화축제 온라인 개최를 위해 축제홈페이지(www.왕인문화축제.com)를 새롭게 단장했다고 8일 밝혔다.

홈페이지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특별이벤트 행사도 연다. 축제홈페이지 방문객을 위한 4행시 이벤트와 댓글 이벤트를 선보이고 참여자에

게는 왕인키트를 선물로 지급한다.

4행시 이벤트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는 특별 행사로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시제에 따라 4행시를 올려주면 심사를 통해 매주 30명에게 선물을 제공한다.

또 영암 왕인문화축제(@wangifesta)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축제 응원댓글을 남기면 선착순 60명에게 선물을 준다.

온라인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왕인의 빛, 미래를 밝히다'라는 주제와 '꽃길 따라 영암으로, 랜선 따라 왕인으로'를 슬로건으로 2개 부문, 17종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축제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영암왕인 TV'



를 개설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전통명 영암군수는 "온라인 축제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글로벌 축제로 진행되는 한편 왕인 박사의 위업을 계승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